

나도 달리고 싶습니다.

(주)쌍용동해산기 기술팀 정 주 교 기장

때는 1984년 3월 12일 이었습니다.

늦겨울을 마감하는 싸늘한 아침.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아내와 세 살 박이 아들(의민)의 배웅을 뒤로 한 채,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루의 업무계획을 확인하고, 지금의 신 공작실에서 Castable-Mixer 제작 작업에 임하였습니다. 오전에 직경 4(m) 가량 되는 상판 용접작업을 완료하고, 오후에는 받침대를 부착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천정크레인으로 믹서를 뒤집어 견인한 상태에서, 받침목을 양쪽 두 군데 고인 후 용접작업을 시작하던 중, 동료 작업자가 천정크레인을 임의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작업자가 천정크레인을 움직이는 순간 믹서는 벽체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저는 미처 몸을 피할 사이도 없이 믹서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안전모를 착용했기에 머리를 다치지 않았으나, 육중한 믹서가 저의 오른 쪽 다리를 찍어 누르고 있었습니다.

순간 “아! 이제는 끝이구나.”라는 생각만 머리를 스칠 뿐.....

주위의 동료 작업자에게 구조된 저는 영동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흉하게 찢겨지고, 유리조각처럼 부서진 다리를 바라보며, 갑자기 아내와 세 살 박이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에 무의식 상태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자신감을 잃지 않겠노라 용기를 가졌지만, 의사 선생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릴 들어야 했습니다.

그 첫 마디가 “다리를 절단해야 합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붉게 물든 붕대와 움직여 지지 않는 다리를 보며, 저 역시도 가망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슬픈 제 자신의 미래를 그려 보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 온 아내와 의민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

순간 “아! 이제는 끝이구나.”라는
생각만 머리를 스칠 뿐.....

주위의 동료 작업자에게

구조된 저는 영동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 되었습니다. 흉하게

찢겨지고, 유리조각처럼 부서진

다리를 바라보며, 갑자기 아내와

세 살 박이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에 무의식 상태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자신감을 잃지 않겠노라

용기를 가졌지만,

의사 선생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릴 들어야 했습니다.

니다. 북받치는 슬픔과 절망도 잠시 뿐, 정신을 가다듬은 아내는 저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도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한 끝에, 다리를 절단 하더라도 서울의 큰 병원에서 시술하기로 하고 경희 의료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한 후, 12 시간에 이르는 대 수술이 있었습니다. 저의 다리는 다리라기보다 옷 수선집의 짜깁기였으며, 피부 이식을 한 허벅지는 정육점의 소 뒷다리라 흡사했다는 생각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으스러진 뼈는 마치 유리 파편처럼 부서졌고, 뼈와 뼈 사이는 핀으로 임시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다행히 의료진의 정성에 다리를 절단하는 불행은 피하게 되었고, 6개월 동안의 입원 치료 후 퇴원하여 동해에서 서울까지 통원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몇 분간의 진료를 받기 위해 하루 전 날 도착하여, 병원 창구 아래서 밤을 지새우는 것이 불편한 몸인 저로서는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저의 완쾌를 위해 전심전력 하였고, 이 과정에서 우리 의민이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되



었습니다. 자연히 가정이라는 보금자리는 저 하나의 사고로 전체가 흔들리게 되었고, 주변의 가까운 친지나 회사의 동료들에게도 큰 부담을 지우게 되었습니다. 자식의 대변도 치우기 힘들다 했는데, 동료들은 주저하지 않고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투병생활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모든 영욕을 버리고, 좌절과 포기를 여러 번 생각 했었지만, 아내의 지극한 간병과 늙으신 어머니의 모습이 역경을 이기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에게는 불효라는 죄책감에 모습을 보이기 싫었으며, 어린 의민이가 기억할까 싶어 불안과 초조한 날의 이어짐이 계속 되었습니다. 사고일로부터 2년여의 치료를 받은 후, 다시 현업에 복귀하게 되었고 다소 불편한 몸이었지만 회사와 동료들에게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근무 하던 중, 치료한 다리에서 다시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검진 결과 뼈에 박은 핀 주변에 심한 염증이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고, 다시 5회에 걸쳐 전신 마취 수술을 받았지만, 곧 나을 듯 하던 뼈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의 곁에서 기대를 갖고 있던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의사 선생님들의 말 없는 행동들은 행여 다리를 절단해야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초라해져가는 저의 모습과 함께 모든 의지는 점점 작아만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3회에 걸쳐 수술을 하였으나, 자체 다리뼈로서는 자생력을 잃어버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리 부위의 염증으로 인하여, 고열을 동반한 통증은 진통제로도 이길 수 없었고, 피부를 이식한 허벅지까지도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통증 자체가 어찌 밤과 낮을 용케 아는지는 모르지만, 밤의 심한 고통이 두렵기 시작했고, 어떤 때는 아무 의식 없이 누워 있는 옆 침대의 환자가 부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아내는 저를 위로해 주었고, 당신은 홀로 설 수 있다고 굳게 다짐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자생력 없는 다리뼈로는 회복이 어려웠기

에 저는 10회째부터 12회까지의 수술을 양쪽 허리뼈를 잘라 내어 다리뼈에 접합해야만 했습니다. 의료진의 끈질긴 노력과 저의 곁에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해 준 아내의 기도 속에, 저의 다리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중한 다리를 다시 찾는 만큼, 저의 허벅지와 양쪽 허리뼈를 잃어버린 육신으로 변해 버렸으며, 또한 한쪽 다리를 완전히 굽히지 못하고, 약간씩 절어야 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두 12회의 수술은, 장장 6년여의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결국에는 완전하지 못한 육신만 남겼습니다.

지금은 복직하여 저 자신은 아무 일 없었던 듯 열심히 근무하고 있지만 후유증은 아직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장 가슴이 메는 것은 처음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 복도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오던 아들 의민이가 했던 말입니다. “엄마! 아빠 죽었나?”라고 묻던 말입니다.

당시 세 살배기 의민이가 이제 대학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와 장가를 들 만큼 성장했습니다. 애비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그 날의 사고를 묻지 않습니다.

이젠 저도 정년을 불과 수년 앞두고 있습니다. 뒤돌아 생각하면 너무나 긴 터널을 지나온 것만 같습니다. 군에서 귀신 잡는 해병으로 복무했지만, 체육 행사에는 어쩔 수 없이 늘 벤치에만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허리뼈를 잘라 내어 다리를 살렸기에, 바지가 자주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추신 : 저는 본 산재수기가 절대 자랑스럽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 하나의 부주의로 가족과 회사, 그리고 동료들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우리는 조그만 사고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절실히 해 봅니다.